

2024
고3
3월 학평

2024년 시행 고3 3월 학평 국어 문학 | 우활가 분석

이 서적은 「저작권법」에 따라 보호됩니다. 본 자료의 무단 배포, 도용 시,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.

지문 분석

이 몸 생겨남이 **금수**(=집승)와 다르므로

[**애친경형**(어버이를 사랑하고 형을 공경함.)과 **충군제장**(임금에게 충성하고 어른에게 공경함.)을 내 분수 안의 일로만 여겼더니]([] : 유교적 가치관의 실현을 추구한 화자)(**‘애친경형’과 ‘충군제장’의 의미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. 해당 시어가 화자가 추구하는 유교적 가치관을 의미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.**)

하나도 못 이루고 세월이 늦어지니(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화자의 처지)

평생 우활은 날 따라 길어 간다(우활함이 계속되어 감.)

[아침이 부족한들 저녁을 근심하며

일간모옥(一間茅屋)이 비 새는 줄 알던가.(설의법을 활용해 화자의 처지를 드러냄.)

누더기 옷이 부끄러움 어이 알며]([] : 화자의 초라하고 가난한 처지)(**화자의 현재 처지에 대해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.**)

어리석고 미친 말이 남의 미움받을 줄 알던가.(설의법)

우활도 우활할샤 그토록 우활할샤.(: 동일한 시행의 반복. a-a-b-a 구조를 활용해 운율을 형성함.)(**‘동일한 시행을 반복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.’와 같은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. 해당 부분에 활용된 표현상 특징과 그 효과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.**)

[**춘산(春山)**(: ‘봄-여름-가을-겨울’ 사계절 내내 우활한 태도로 살아왔음을 고백함.)에 꽃을 보고 돌아올 줄 어이 알며

하정(夏亭)에 잠을 들어 꿈 깰 줄 어이 알며

추정(秋天)에 달 맞아 밤 드는 줄 어이 알며

동설(冬雪)에 시흥(詩興) 겨워 추움을 어이 알리.]([] :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함. 사계절 내내 지속되는 자신의 우활함.)(**해당 부분에서 드러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.**)

사시가경(四時佳境)(사계절의 좋은 경치)을 아모란 줄 모로라

▶ 젊은 시절의 우활함에 대한 한탄

말로(末路)(세상 끝)에 버린 몸이 무슨 일을 생각할꼬

인간 시비(是非)(속세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소리들) 듣도 보도 못하거든

일신의 번성과 쇠락 백 년을 근심할까

우활도 우활할샤 그토록 우활할샤.

아침에 누워 있고 낮에도 그러하니(무기력한 모습)

[**하늘이 준 우활**(자신의 우활함을 하늘이 준 운수라 여기고 있음.)을 내 설마 어이하리.]([] : 설의법을 통해 체념적 태도를 드러냄.)(**화자의 체념적 태도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. 특히 화자의 태도를 비교하는 수능형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으니, 해당 부분에서 화자가 체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.**)

▶ 말년의 우활함에 대한 한탄과 체념

그래도 애달프도다 고쳐 앉아 생각하니

이 몸이 늦게 나서(: ‘이 몸이 늦게’ 났다는 의미를 ‘희황천지’, ‘요순 일월’ 등과 관련지어 해석할 필요가 있음. 원하는 시대에 태어나지 못한 화자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답을 찾아야 함. / 자신이 태어난 시기가 태평성대가 이미 지난 후임을 언급하며, 그로 인해 자신의 우활함이 깊어졌다고 털어놓고 있음.) **애달픈 일 많고 많다.**

일백 번 다시 죽어 **옛사람 되고 싶네.**(**옛사람(성현)들의 삶을 따르고자 하는 소망**)(**화자의 소망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화자가 '옛사람'이 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.**)

[**희황천지**(중국 북위씨 때의 세상. 태평성대를 뜻하는 말)에 잠깐이나 놀아 보면

요순(堯舜)(요순시대를 이룸.) 일월(日月)을 잠시나 쬐 것을]([]: 화자의 소망 ① / 고사를 인용함.)

순박한 풍속이 아득히 멀어졌으니 경박하게 되었도다.(**현재의 세상에 대한 한탄**)(**현재의 세상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.**)

한만(汗漫)한 정회(情懷)(경박한 세상의 풍속으로 인한 착잡한 생각과 느낌)를 누구더러 이르려뇨

[태산에 올라가 온 세상이나 다 바라보고 싶네.

추로에 두루 걸어 성현이 가르치던 자취 보고 싶네.]([]: 화자의 소망 ②)

(중략)

만 리에 눈뜨고 태고에 뜻을 두니(**우활함으로 인한 괴로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**)(**해당 부분에서 '만 리', '태고'의 의미가 무엇인지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.**)

우활한 심혼(心魂)이 그리로 가고 아니 오는구나.(**우활한 마음이 사라짐.**)

인간에 혼자 깨어 누구더러 말을 할꼬.

▶ 우활함으로 인한 갈등과 괴로움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
- 정훈, 「우활가」